

참교육

많은 부모님들이 열성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교육지원하시는 모습들이 참 바람직하고 좋은것같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그런 열정과 관심이 대단한데 반해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주기위한 바른 태도와 지식이 부족한것을 볼때가 많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모든 교육적 가치가 바른 결과를 만들수 있는것은 바로 “덕승재”의 원칙위에서 이루어 질때다. 오재전부터 내려오던 말을 전혜성 박사가 더 유명하게 만든 이말은 바로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된다라는 말이다. 난 이말을 좀더 풀어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인격의 그릇이 그것을 담지못하면 소용없다 라는 것이다. 넘치는 생수가 팔팔거리고 손는곳에 손바닥만한 용기를 들이대야 소용이되서 쓸만한 양은 결국 손바닥만큼인것이다. 그러나 넓직하고 깊은 용기로 받을수있다면 충분한 양을 얻을것이다. 이와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능력 이모든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발휘할수있는것은 바로 인격이라는 용기의 넓이와 깊이만큼인것이다. 세상이 컴퓨터화되고 이웃과 이웃의 담벼락이 높아갈수록 더욱더 그리워지고 갈급해짐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다른사람을 품을수있는 따뜻한 인격이다. 아마 우리모두는 그런경험이 있을것이다. 나와 상관없지만 길을 스쳐 지나가면서 만난 악의 하나 없는 순한 웃음 한조각 , 전혀 그래보이지 않은 우락스러운 외국인이 한국 할머니가 길을 건너는것을 보살펴주는 장면을 목격하는등.. 문득 기대치 않았던 다른사람의 작은 배려나 따스한 마음씀씀이에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에 찡할정도로 인간미를 느끼고 나가서는 산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까지 느끼게 했던 경우들... 나한테만 있었던 일은 아닐것이다. 이렇게 작은 일에 내 가슴전체가 휘청하고 감격할수 있다는것에 놀라워하며 얼마나 우리가 이러한 따스한 작은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나하고 말이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사람은 바로 풍성한 인격을 담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똑똑한데 인격이 부족해서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약탈하는 그리고 다른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럴바에야

무지해도 가슴따스한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더이상 망가지지 않고 아파하지 않게 하는 것일것이다. 미국의 금융계의 사건으로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는 한 단편의 모습이다. 자신의 주머니들을 착복하기위해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을 남용해 많은 서민들이 한숨과 탄식속에 살게 만든것이다. 우리부모님들께 간절히 바라본다. 우리자녀들 봉사시간 100 시간을 채워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전화보다 우리아이가 사회의 어려움속에 처해있는 그들을 섬겨보고 배움을 입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진실한 바람이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싶다. 봉사시간 100, 200 아니라 1000 시간이라도 아이의 인격과 가치관에 영향력을 주지못하는 그 봉사는 그야말로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할것은 모든 대학 당국들도 시간채우는것에 관계없이 그봉사를 통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삶에 어떠한 가치관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나를 본다는 것이다. 미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다 비슷비슷한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학교당국이 그가치를 매길수 있는것인가? 그것은 양적인일이 아니라 질적인 봉사를 통해 가치있는 인생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한 인격의 성숙에 있는것이다. 그래서 그학교에서 받게되는 좋은교육이 사회에 나가 바른 역할을 감당할수있게 하기위한 목적이 있기때문인것이다. 시간때우기위한 봉사를 가르치는 부모에게 자녀가 배울수 있는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잘못된 가르침의 또다른 면일것이다. 자녀는 부모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가장 무서운 상대인것을 기억하자.